

Moving forward!

내일을 위한 생각! 멈추지 않는 열정!

성실과 열정이 빚어낸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발전을 이끌어 온 한국전력기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발전소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KEPC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Family

2021. 11+12



2021 11+12 KEPCO E&C Family



통권 467호 2021년 11,12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1년 11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04 특별기고

에너지 시대의 승리자

06 Sci-Tech I

AI 로봇, 그 과거와 미래

08 Sci-Tech II

클라우드 컴퓨팅, 구름 속을 날다

10 Brief News

UAE 사장단 회의 참석 및 BNPP현장 방문
이해충돌방지 교육 및 실천서약 실시
한국서부발전, 두산퓨얼셀과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공동사업 MOU
원전 기기공급업체 기기검증 역량강화 지원
2021년도 디도스(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1년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21년도 하반기 안전문화 증진의 날 행사 개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위원회 구성
나눔냉장고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한기도담 어린이집 제1회 야외 사진전 및 시화전 개최

14 이달의 한기인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



16 기획취재

인마친화(人馬親和) 말조련 교육: 말(馬) 잘 듣는 말(言)

18 직원사진 참여 마당

눈을 품은 백록담

19 이 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 Shall We Meet?

권혁복 안경사 "그릇된 시각을 교정 받다"

22 맛집탐방

김천 서민 식당을 중심으로

24 김천 나들이

고성산과 김천시립도서관

26 작가의 흔적

어느 인기 없는 여행지의 낭만

28 지역탐방

엘림다육농원 방문기

30 독자참여

우리 집 막내 천사 흑당이



32 펜 가는 길

고래가 부르는 노래

34 생활상식

등본과 초본 사이

36 머니머니

시골 땅 사기

38 나의 취미

재즈, 낚섬과의 조우

40 Culture

에밀 아자르

42 여행가재

여수여행기

44 유용한 앱

오피스 무료 프로그램 Polaris office

46 사보기획 이야기

독자와의 수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 밖에

에너지 시대의 승리자

- 전력공학자 입장에서 바라본 -

전력산업 목표는 최효용(비용과 이익을 적절히 설정, 최적제 또는 최유효의 유사어)에 맞추어

정전 없이 전기를 공급함에 있다. 그러므로 양질의 풍부한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책임을 사업자가 진다. 이 정의는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지금도 큰 변동이 없다. 여기서 '정전 없는' 의미는 전력 시스템의 신뢰도를 뜻한다. '양질'은 주파수와

전압 변동을 의미하는 품질을 말한다. 따라서 전원개발, 송변전, 배전 계획을 수립할 때 신뢰도 및 품질을 제약조건으로 경제성에

목표를 두고 최적함수로 수식을 세우고 최적해법을(어제, 어디에, 얼마의 설비용량)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

전력은 저장 불가능한 속성으로 발전(發電)과 동시에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 발생과 공급이 일시적이라 이를 동시성 또는 즉시성이라 한다. 이는 전력공급에서 주요사항으로 어긋나면 정전사고 또는 품질저하가 일어난다. 2012년부터 미국 전기전자공학회 전력에너지소사이어티(IEEE PES)에서는 1억 년에 한 번, 혹은 1만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사고를 다루는 복원력 연구를 시작하였고 매년 백악관 명의로 보고서가 나온다. 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인류생존에 위기를 초래하는 사고들이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불가능하며 인류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의미를 내포한다.

생존 보장이 어려운데 잘살려 한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참 다운 삶의 추구는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생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진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속성을 보

WHAT IS ENERGY EVOLUTION?



SURVIVAL AND RESILIENCE?

장받는 이윤이 여기서 생겨난다. 더 이상 거짓과 사기, 허풍과 협박, 그리고 협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가령,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익을 최선으로 추구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익추구는 중요하지만 미래 패러다임의 초점은 역시 생존이다.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생존 패러다임에 방점을 찍고 보면 승리하는 산업체계가 눈에 들어온다. 지난 수년 동안 "기후변화가 정말 탄소배출과 관련 있는가?"라는 진실 논란이 암암리 있었다. 이제는 에너지원도 유전인자를 갖고 적자생존을 인지해야 한다. 생태계 보존과 생존 본능을 인류가 이번에 깊이 인식하였다. 에너지원도 생존과 도태를, 그리고 적자생존도 한다. 에너지원의 유전인자가 현재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원 유전인자가 깨끗하고, 둘째 인류생존을 보장하여야 한다. 후자는 인간 관점에서 생존이지만 환경 측면에서 보면 생태계 보존 조건이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원이 승리자가 된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등 환경 물질을 현재 기술개발로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얻는 에너지원은 지구온난화를 발생하여 생존에 위협을 가하며 유전인자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현재의 원자력 메카니즘이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에 근거한다. 연쇄반응이 일어나도록 우라늄235를 적절히 농축하여 연료로 사용한다. 그런 원자력은 어떤 식으로 설계하든 유전인자면에서 핵분열이고 방사선을 발생한다. 이것은 생명체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크게 보면 지구 생태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유전인자란 구현체가 가압경수로, 비등경수로 또는 리히터 지진강도 8 등에 견디는 설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유전인자는 근본을 의미한다. 앞으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에도 생존이 가능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왜 그동안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핵분열 원자력 메카니즘을 개발하지 못하였는가. 지금이라도 그런 기술을 구현한다면 최고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WHAT ARE SURVIVAL ENERGY DNAS?



RESILIENCY : RESILIENCE IS THE ABILITY TO ABSORB SHOCKS, STILL RETAIN FUNCTIONS AFTER ADDRESSING OBSTACLES.

그럼, 에너지 진화면에서 생존 조건을 만족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현재까지는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아마도 이들은 핵융합 발전이 나오기까지 향후 50년간 승자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원은 출력 형태가 불확실하고 간헐적이다. 이는 덕 곡선(Duck Curve)을 발생시켜 공급과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의 즉시성에는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는 기술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증가할수록 배터리나 양수발전과 같은 에너지저장장치(ESS)들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택배회사가 돈을 버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43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조총이 활보다 발사속도는 낮지만 이를 보완하면 살상 무기의 목적함수인 사정거리와 정확도에서 앞서 있음을 알았다면 약 300년 이후 우리 민족은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멍처진 코로나19 사태와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대처를 보면서 슬기로운 국민으로 이루어진 국가, 창조주 앞에 진정 겸손한 사회만이 생존함을 가슴으로 느낀다. 진화하는 에너지 전환시대의 장단기 계획을 지혜롭게 수립하여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ESC**



AI 로봇, 그 과거와 미래

인류 최초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인간탄생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어느 날 신들은 매일 반복되는
 잡다한 노역을 하기 싫어졌다. 그래서 우리들 고역을 대신해 줄 생명체, 인간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창조한 인간이
 성가셔졌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우두머리 신은 창조한 인간을 모두 물에 빠트리려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는데 열정과 애착을 지닌 신이 전멸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여 몰래 한 인간을 도피시킨다.
 대략 9천 년 전 기록은 최근에야 해독되었다. 거기서 구약성서 밑그림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한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 1만 년 전에는 인간, 동물, 신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혼연체로 나타난다.

힘든 노동에 시달린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 우리 일을 대신하게
 하자는 본격적 발상은 대략 200년 전부터 나왔다. 100년 뒤 자
 동화(Automation)로 개념이 보다 확장·발전했다. 로봇이 등극
 한 시기이다. 인공지능은 대략 1980년대부터 나온 걸로 기억한
 다. 당시 도서관에서 간단한 문법과 단어를 랜덤 방식으로 조합
 한 결과, 프로그램이 간혹 기발한 시구(詩句)를 창조해 낸다는
 책을 읽었다. 해외토픽에서 SF소설과 비틀즈 신곡을 AI가 멋지
 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정말 인공지능은 無에서 有를 창
 조한 것일까? 알고 보면 인간이 줄거리(plotline)를 구상하여 열
 개를 잡아주어야 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혼합 또는 변형한다.
 결국 본질적 변화는 없었다. 더욱 정교해져 그럴 듯 보일 뿐이다.

이전 연재에서 밝혔듯 자연언어처리, 생명 현상, 유전자 조작,
 복잡계 문제는 AI가 썩 훌륭한 결과를 내어놓지 않고 한계를 드
 러냈다. IBM은 초고성능 AI가 의학 논문을 곧 읽고 이해하리라
 예상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자 일찌감치 포기해버렸
 다. 와중에 AI 분야 특허는 많이 획득했다. 방송언론에는 아래 도
 식이 AI 성공 방정식으로 나오지만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
 야기가 들린다.

Big Data ⇒ Deep Learning ⇒ 통계 추론 ⇒ Solution 도출

엄청난 데이터 처리와 계산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AI는 인간
 이 조금만 배우면 금방 식별하는 인지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개
 사진을 판독하는데 수천 만장의 빅데이터를 주고 돌려도 버벅
 댄다. 인간의 간단한 언어유희(pun)도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럴
 까? '자기인식'과 '심층구조'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AI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성력이 제로이다. 반대로 인간은
 심층구조를 내장(embedded)하고 세상에 나온다. 그래서 자아
 인식과 몇 가지 패턴만 주어진다면 자유자재로 나머지를 생성하거
 나 추론한다. Deep Structure가 본래 없는 AI에게 표층단계 정
 보만 쏟아붓고 처리하면 공전만 할 뿐이다.

그러나 AI에게 어떤 비약적 알고리즘이 부여될지 알 수 없다. AI
 의 압도적 기량은 그 처리량과 속도이다. 인간 일 대부분을 대신

해 줄 무궁한 가능성도 함유하고 있다. AI 미래를 예측해 보면 인
 간 욕망이 투영되는 방향으로 전쟁, 돈, 생명과학, 섹스에 우선
 집약된다. 그 짓 하지 말라 해도 누군가는 숨어서 다 한다. 예를
 들어 전략사령부는 적국 취약성을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광범
 위하게 시로 분석하여 포착한다. 전투기와 항모는 드론과 편대
 를 이루며 합동작전을 펼친다. 변수와 변동이 극심한 주가 예측
 도 인공지능과 투자분석가가 경합 중이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
 아직 알 수 없지만 AI쪽 승률이 조금씩 높아진다. 인공지능은 어
 떤 알고리즘으로 주가를 분석, 예측하는가? 속성변수 가중치로
 동작하는 것 같다. 재미난 점은 AI는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방정식(The Cold Equation)' 그대로 움직인다. 인간은 희망을 품
 고 자신을 합리화 하기에 자신이 판단한 종목이 하락하면 곧 반
 등하리라 기대하고 매도하지 못한다. AI는 무조건 최소 손실, 최
 대 이익에만 맞춘다.

AI 로봇이 인간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까? '사'와 '자' 붙은 직업은
 AI 잠식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직업군은 대체로 법률로 보
 호되어 침입을 막고 있다. 삼시간에 AI 로봇이 공장, 사무실, 병
 원, 회관을 점령하지 않는다. 여러 난관으로 느리게 이행 중이다.
 이 때문에 로봇공학 통계도 생산과 제작에 로봇을 투입했다고
 해당 산업계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직
 AI 로봇 초반기를 감안할 때 우려는 지나치다. 조금씩 서서히 인
 간의 일을 줄여 나갈 것이다.

인간을 창조해 놓고 신들은 왜 폐기를 결단했는가? 그런 사정과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연대기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어쩌면 인간
 이 손오공처럼 오만하고 반항적이었을까도 모른다. 여하튼 인간
 창조물을 너무 사랑한 신이 인간을 빼돌렸기에 멸종은 막았다.
 이 신의 상징수는 수비학(數秘學)적으로 '42'이다. 이 숫자는 구
 약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
 고된 일을 대신하게 하자고 결정하였다. 어떤 창조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단계에서 인간은 당분간 창조에만 몰입할
 것이다. 다음에는 AI 윤리와 관련한 'HAL 9000 Fallacy'를 말해
 볼까 한다. **ESC**

클라우드 컴퓨팅, 구름 속을 날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통신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 중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80년~90년대는 국내 월간지 전성시대였는데 어느 날 소리소문없이 모두 사라졌다. 그 시절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컴퓨터 잡지에서 모든 것은 클라우드로 통한다는 특집기사가 나왔고 클라우드 컴퓨팅도 대략 20년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천천히 부상하였다.

올해 가스, 송유관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가 랜섬웨어에 걸려 몇 주간 공급이 마비되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해커에 거액을 지급하고 서버는 풀려났고 송금액을 회수하는 막후 이야기는 007 첩보영화를 방불할 정도로 복잡하다. 국가 근간이 해킹으로 흔들리는 두려움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 수장을 불러 모아 '앞으로 좀 잘해달라' 당부했다. 현재 AI 보안 기술은 미국이 중국에 조금 뒤처져 있는데 미국 기업이 정부 통제를 기피하고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산업별 발전지수를 보면 클라우드 도약은 불을 내뿜을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반도체, 금융, 생명공학, 소프트웨어를 능가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아직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산업 통계를 찾아보니 클라우드가 번성한 미국 기업도 25% 정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이루었을 뿐 이 산업은 여전히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

클라우드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과 관리를 하는 대신 외부의 데이터 센터 서버와 기록 스토리지 일부를 사서 데이터를 바깥에 맡긴다는 뜻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마치 자체 서버를 구축한 것 같은 가상 데이터 센터를 가진다. 달리 말하면 일정 몫의 서버 공간을 할당받는다. 클라우드 전환이 왜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는가? 간단히 도식화해보자.

서버 유지 = 구축비 + 관리 유지 운영비 + 서버 업그레이드, 확장 비용 = 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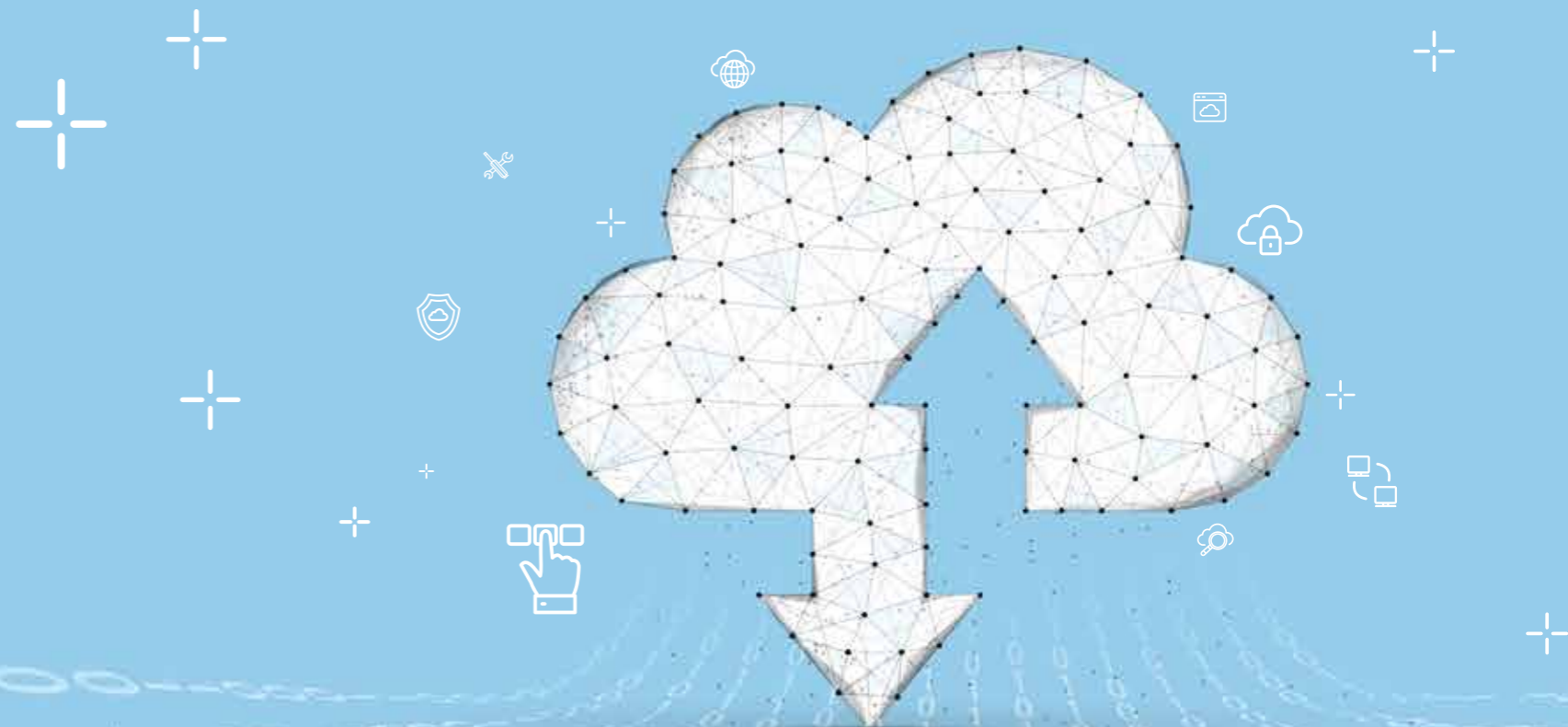
클라우드 = 위의 모든 성능을 구현 = 70원

기업에서 자체 서버를 구축, 유지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은 감소한다. 사업을 지속할수록 데이터양은 늘어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 속도를 높이려면 하드웨어와 통신속도를 자주 업그레이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예견하고 가장 발 빠르게 뛰어든 기업이 아마존이다. 뒤늦게 시작하여 가장 후회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이다. MS는 조금 늦었지만 현재 맹렬히 추격 중이다. 구글, 어도비, IBM도 클라우드 산업에 합류했다. 이들 기업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통신과 연결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건설 기업에 의존한다.

이런 운동장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관리, 분석, 도식화(그래픽으로 보여주기), 인공지능 적용, 사이버 보안 등의 다양한 패키지 와 관리 요소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존재한다. 국내 투자자가 열광하는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눈송이), 클라우드 플레이어(구름 불꽃), 세일즈포스 등이다. 클라우드 섹터는 눈감고 아무 종목이나 찍어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성장기업들이다.

클라우드가 좋다고 하는데 왜 데이터 이전을 머뭇거리는가? 통계에 의하면 먼저 이전 비용이 부담스럽다. 둘째 '보안'이다. 다른 장소로 데이터를 몽땅 옮겼는데 해킹으로 털리면 망하는 것 아닌가? 기업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거나 화재 또는 해커 공격이 걱정이다. 한편 보안이 중시되는 미국의 보험, 은행, 유통 회사들 중 이미 100% 클라우드로 이전한 성공사례도 나온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암호생성과 어떤 암호도 뚫는다는 암호해독, 방패와 창이 모순인 보안이다. 보안과 방호는 침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지하고 막느냐 레벨에 따라서 다양하다. 클라우드 보안업체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 중이다. 달리 자체 서버만 운영한다고 백 퍼센트 안전한 것도 아니다.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 비용이 들고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불안하면 현상유지(status quo)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목적과 용도 따라 클라우드를 폐쇄형 또는 개방형으로 하는가, 중요 자료의 복제 백업을 하는가, 비밀등급 하이어나키를 정확히 분류하는가는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더딜수록 기업 생산성 효율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한다. [E&C](#)



KEPCO E&C News

UAE 사장단 회의 참석 및 BNPP현장 방문

김성암 사장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Team Korea (한전, 한전기술, KNF,KPS, KDN) 사장단과 함께 UAE를 방문하여 UAE 원전사업 발주처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Team UAE (ENEC, Nawah, BOC) 주요 인사들과의 합동면담을 통해 바라카 원전의 성과 공유와 양국 경영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회사에서는 김성암 사장과 하재홍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이 참석하였으며, BNPP 1호기 전기출력 회복방안, BNPP 2,3,4호기 기술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Team Korea 사장단은 9월 7일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주요시설 및 건설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며 최종 4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UAE 사장단 회의 참석 및 BNPP현장 방문

이해충돌방지 교육 및 실천서약 실시

10월 5일 김천 본사에서 경영진 및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과 관련해 경영진을 중심으로 인식 강화 및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백지은 변호사 강의로 진행, 교육 후 전 경영진이 릴레이로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히 업무수행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해충돌방지 교육 및 실천서약 실시

한국서부발전, 두산퓨얼셀과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공동사업 MOU

10월 22일 서부발전, 두산퓨얼셀과 함께 '생활형 바이오가스(청정수소) 활용 연료전지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규 에너지신사업본부장, 김성균 서부발전 성장사업본부장과 이승준 두산퓨얼셀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3사는 미활용 바이오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에 투입하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우리회사는 전처리설비 공급과 순바이오 연료전지 부대설비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한국서부발전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사업총괄과 주기기 공급을 담당한다.



한국서부발전, 두산퓨얼셀과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공동사업 MOU



원전 기기공급업체 기기검증 역량강화 지원

원전 기기공급업체 기기검증 역량강화 지원

9월 8일 원전 기기공급업체의 검증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원전 기기검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온라인(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대중공업, LG전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원전 기기공급업체와 원자력 유관기관 기술진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 내진해석 모델의 유효성 검토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원전 방사성 방출 시험면제 이격기준 △ 공급자 등 검사현황 및 규제방향 △ CAE를 활용한 가동원전 교체부품 내진검증 △ 국내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인허가 기준 개선 고찰 △ 글로벌 성능검증 정보시스템 소개 및 향후 계획 △ 부품수준 EMC 검증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2021년도 디도스(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1년도 디도스(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 실시

9월 30일 본사 사이버보안관리실 주관으로 '2021년도 디도스(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모의훈련은 DDoS 공격상황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황별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상태 점검 등 DDoS 공격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회사는 DDoS 공격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시에는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업체와 협업하여 방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훈련에는 KT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사내 사이버보안 전문가 24명이 참여, 실제와 유사한 DDoS 공격에 대한 자체방어대응 훈련과 대규모 공격 발생시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업체와 협업하는 Clean-Zone 방어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회사는 최근 원격근무 확대에 따른 외부 위협 노출에 대비하여 VPN 관제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가동 중 정보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할것이다.

2021년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회사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 :

KEPCO E&C News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에서 우수기관 신규 인증을 획득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국가가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선정·인증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인적자원관리(채용,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 37개 심사지표를 바탕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5개 공공기관(신규 15개 기관, 재인증 30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2021년 'Best HRD'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21년도 하반기 안전문화 증진의 날 행사 개최

10월 20일 『안전문화 워크숍』과 함께 『안전문화 다짐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서 안전문화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동적 자율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설계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루어졌다.

행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안전문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문화 교육 및 안전문화 수준평가를 위한 근로자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열린 안전문화 다짐 선포식에서는 각 부서 안전문화 담당자들이 안전문화 활동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다짐하였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주간 안전문화 증진의 날 행사 기간을 맞아 “안전문화 수준진단, “안전문화 한줄평 이벤트”,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및 게시” 등 다양한 직원 참여형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내 안전문화 정착 및 이행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위원회 구성

9월 28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ESG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ESG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이사 3명과 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적 관점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내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내에는 ESG위원회와 연계하여 실행을 주도해나갈 실무부서가 중심이 되는 분야별 ESG경영추진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경영현안을 심의하고 ESG와 관련된 각종 자문



2021년도 하반기 안전문화 증진의 날 행사 개최



나눔냉장고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역할과 함께 ESG경영의 성과 및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회사 ESG경영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나눔냉장고 후원 이웃사랑 실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사회배려계층의 식생활 개선, 지원을 위해 지역내 나눔냉장고에 연말까지 42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한다. 수혜계층 맞춤형 복지지원에 위해 나눔냉장고의 운영현황과 필요 물품을 조사하여 쌀, 라면, 밀반찬, 간편식품을 후원하며, 금년 말까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식료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행복나눔 냉장고의 지원 물품은 전통시장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구매된 것으로, 지역 전통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관, 지자체, 봉사단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상생 실현에 한 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業연계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 낙후농가 및 장애인가구 등 약 240가구의 노후화 전기설비 등을 점검, 교체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가 판로확보를 위한 지역농산물 특판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기도담 어린이집 제1회 야외 사진전 및 시화전 개최

한기도담 어린이집에서 제1회 야외 사진전 및 시화전이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여진 사내 산책로에서 10월 20일 - 10월22일까지 개최하였다. 야외 사진전 및 시화전은 2~5세는 학기초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고 6~7세는 각각의 이야기를 창의적 그림과 시로 담아보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열린 야외 사진전 및 시화전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부모참여 행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계획하여, 회사와 가정, 직장어린이집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다. E&C



한기도담 어린이집 제1회 야외 사진전 및 시화전 개최

퇴직 후의 한기인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

“한기 직원은 우수한 전문가지만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시각이 좁아집니다(narrow view).

은실 안 화초를 바깥에 옮기면 얼어 죽듯 멀리 날아올라 세상을 넓게 보면 기회의 루트가 보입니다. 퇴직 이후 직원이 사회에 녹아들 듯 연락처 계기를 회사가 제공하고 어떤 면에서 기술사 준비도 한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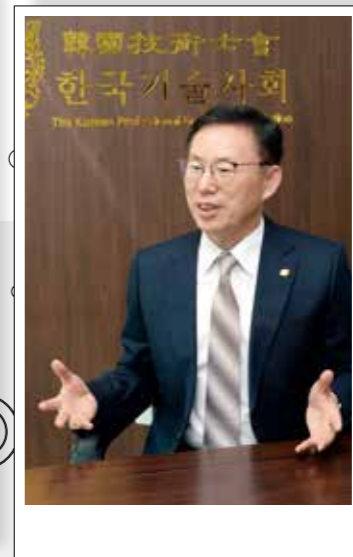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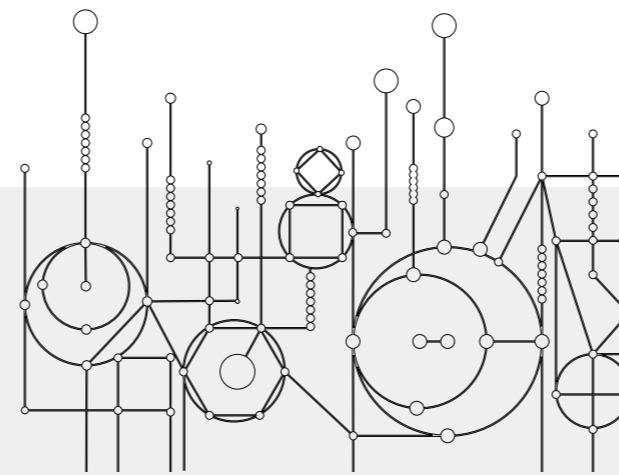


강남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501호에서 주승호 회장을 만났다. 그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983년 한기로 이직, 1997년 소방 관련 회사를 설립하려고 퇴직하였다. 주 회장 삶의 궤적은 영광원전 3, 4호기와 IMF 사태를 떠올리면 그 시절을 그려볼 수 있겠다. 한기에서 원자력본부 기계기술처에서 근무하였다.

상황 따라 현미경과 망원경을 번갈아 보아야 한다는 주 회장 말을 듣고 양안적(兩眼的) 시각을 생각해 보았다. 어떤 때는 부분을 확대해 보고 어떤 때는 전체를 축소하여 조망함은 전문가와 경영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뜻이다. 이를 병법의 용병술에 적용한 다케

다 신겐이 떠올랐다. ‘카이의 호랑이’라는 그는 風林火山을 자유롭게 움직였다. 주 회장도 언덕에 올라앉아 진세를 바라보는 위치이다. 기술사 회장은 국내 산업의 전 섹터와 동향 그리고 85개 기술종목 5만7천명의 기술사 입장을 대변하니 산업과 기술 향배를 늘 파악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북방의 강맹, 남방의 온유로 따지면 북방계는 얼굴이 넓고 풍채가 커 주변을 장악하려는 기질이 있고 남방계는 얼굴이 계란형으로 가름하고 날씬한 체격에 부드러운 성미가 있다. 주 회장은 능란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남방형으로 보였다. 생글생글 웃으며 대화



와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이렇게 기자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따로 파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의 말허리를 분지르고 초점을 계속 이동했다. 하얀 깃털이 달린 화살(뚜렷하게 돋보이는 스토리)이 나올 때까지 불쑥불쑥 질문을 던졌다.

“소방과 기술사 양대 회장에 선출된 이유가 뭔가요? 경쟁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기술사 비중에서 토목과 건축 분야가 다수(약 35%)입니다. 저는 건축기계설비와 소방 쪽 기술사였구요. 사람들은 선거에 나가면 떨어질 게 뻔하다 생각했지요. 그때 나머지를 공략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했어요. 또 양재 aT센터에서 방제기계산업전을 기획하여 대박 쳤습니다. 일반인을 제외한 관람객 9천명이 찾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분과회장들이 충격에 빠졌지요. 이 사람이라면 뭔가 할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산토끼를 다 잡자는 발상은 흰 눈 가득 싸인 눈발에 은쟁반을 살포시 포개어 없는 전략이다. 아니 현실적으로 본다면 주 회장의 친화력과 설득력이 하나씩 대의원의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았을까 상상했다.

인터뷰 끝난 후 스토리 잡을 때 잔존 영상에 의지한다. 유머 섞어 부드럽게 말하는 이면에는 하나부터 열을 챙기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게 섬세한 배려, 디테일에 강함, 한번 물면 입을 안 벌리는 끈기일 수도 있다. 여가 중 취미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노트 메모(jot down)입니다.” 그는 매일 3개 신문을 통독하고 1시간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 누군가 대화할 때 사실, 통계, 숫자에 꼭 근거하여 말하는 습관이 있다. “적자생존이 다름 아닌 적은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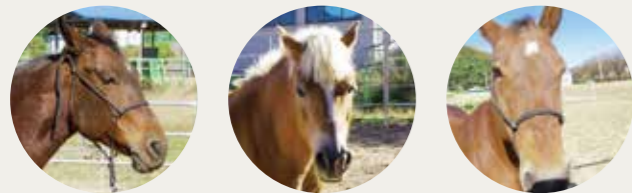
주 회장이 죽자 살자 적은 이유는 현재 기술사법과 기술사 서명날 인제도 등 복잡한 입법 현안에 매진하기 때문인 것도 같다. 정부와 국회에서 질의와 검토 의뢰가 쏟아지고 답변을 정리해야 한다. 또 만나 설득해야 할 사람도 지천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요연하게 노트에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의 도가니탕에 빠진다.

주 회장은 도대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 걸까. “기술사회관 건립과 기술사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바로 끝내고 두바이를 경유하여 키르기스스탄으로 날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정부 각료와 고위인사와의 일정이 잡혀 있다. 이런 분을 영어로 Go-Getter(가서 뭐든 건져오는 자, 수완가)라 부르는데 바쁜 시간을 뺏을 수 없다.

열차로 돌아오는 길 그이로부터 메시지가 당도했다. 취재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接人春風 臨己秋霜”이 핸드폰 화면에 찍혔다. 사람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에 임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한기와와의 인연으로 혹시 도움 필요하여 누군가 찾아오면 반겨 맞이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겼다. 그때서야 “참 면밀한 분이시구나!”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주 회장은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다. 장남은 변호사로, 차남은 의사가 되었다. 이분 성품이라면 자식 키울 때 자신들이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구체적 동기를 기억하도록 늘 옆에서 북돋웠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주 회장에게 배운 사자성어 하나 더.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된다. **es&c**



인마친화(人馬親和) 말조련 교육 : 말(馬) 잘 듣는 말(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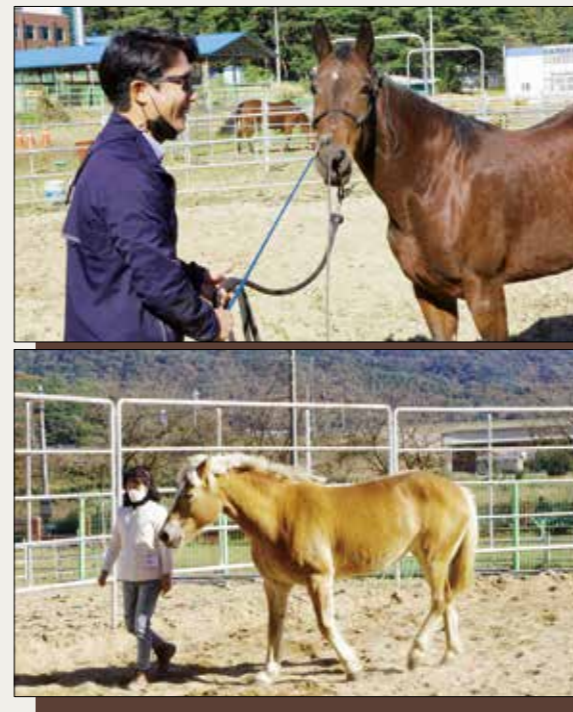
마장 여기저기 ‘말 잘 듣는 말’, ‘말 안 듣는 말’이란 말들이 참가자 입에서 쏟아졌다. 경북대 상주캠퍼스 부설목장에서 인마친화(人馬親和)에 참여한 회사직원들은 특수동물학과 윤 민중 교수 손짓 따라 말이 강아지처럼 옆을 돌다, 뛰다, 서다를 반복하는 장면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군마의 지축 흔드는 소리’가 어땠는지 짐작 갔다. 먼지가 일고 땅이 파이며 ‘푸루루 헝헝’ 콧소리가 공기를 가르다. 말의 코는 여닫이 방식으로 열고 닫는 구조이다. 최대 개방 시 산소 흡입량이 많아 바람 소리가 휘잉휘잉 들린다.

윤 교수가 던진 말씀. “예전 말을 지배와 억압으로, 공포와 고통을 가하며 길들였는데 현대는 신뢰와 동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 리더십과 팔로우어를 배우면 사람도 ‘확’ 달라집니다.” 고양이와 말은 인간 상상 이상으로 겹이 많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낚시가 이상하면 냅다 튀어 버린다. 그 행동이 인류에게 ‘여성’이란 무의식적 이미지로 남아있다. 각 조로 나누어 말과 교감을 나누고 기본 조련에 참가한 실습자들이 모두 암말이다. 왜 수말이 없는 걸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수컷은 의지가 강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부리나 보다. 그래서 수말 길들이기 더 힘들다고 하니, 미안하지만 나도 그렇다.



결국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이전 생겨나는 두려움이 문제다. 사람과 말이 만나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사람은 말의 덩치와 힘이 무섭다. 말은 언제 나를 공격해 들어올까 사람이 무섭다. 말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크다. “아,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구나!” 구나의 법칙이 통하고 말이 긴장을 풀고 안심하면 “나는 네가 좋아서 순한 말이 되었지. 풀밭 같은 너의 가슴에 있게 해줘.”가 된다. 이때 윤 교수 일침이 놓였다. “말은 굉장히 서열 중심의 모계사회로 하렘적(harem) 특성을 띄웁니다. 그래서 리더는 ‘나’이고 너는 ‘따르는 자’란 걸 먼저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뒷부분은 듣지 않아도 알겠다. 이놈은 별 게 아니구나, 간보고 개기기 시작한다. 사람이 탄것하는 것처럼.

말은 사람에 등에 태우고 열 걸음만 걸어도 안다. 사람의 심장박동, 감정변화, 동태가 ‘딱’ 느껴진다. 말은 생각한다. “아, 젠장 오늘 완존 초짜가 탔구나. 적당히 알아 모실게요. 겁먹지 말고 잠깐 있어요.” 이날 교육에서 말은 지능이 인간 아이 2세~3세 정도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이 측정한 동물 지능을 믿지 않는다. 온갖 동물을 키워 본 경험에 따르면 개도 천재견과 바보견이 있을 뿐이다. 똑같이 보이는 참새도 성격, 지능, 행동이 달라 키워보면 금방 개체 차이를 구분한다. 초식성의 민감함, 주변 경계심, 각 말의 경험에 따라 말도 아마 말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말은 언제나 “She is a very sensitive kind.”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말의 스펙을 살펴보자. 수명 25년, 체중 400kg~600kg, 최대 하중은 자기 무게의 삼분의 일(대략 150kg~200kg)을 견딜, 임신기간은 인간의 것 플러스 30일(11개월), 술 마시고 말보르 피는 나이 5세, 홍당무 좋아하는 이유는 달달해서, 건초보다 생초 선호, 클로버 풀은 달고 부드럽고 단백질이 많아 좋아한다. 써러 브레드(Thorough bred)는 주로 경마용 말을 의미한다. 말목말과를 조교에게 물었더니 Hot, Cold 등으로 분류했다. 벤허 영화는 경주 장면이 압권이다. 거기서 주다 벤허는 아랍종 백마를 선택했다. 그 종자가 날카롭게 잘 뛰는 마과라 한다. 러시아 말을 얼핏 본 적 있는데 그게 콜드 브레드인지 털이 무성하고 크기가 공통급이다.

윤 교수가 강조한 공감(empathy)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자기 심리학을 창시한 하인즈 코헨은 공감은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로 정의했다. 우리는 말의 편자를 발바닥에 달 수 없지만 그래도 말의 처지에서 원하는 게 무언지 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알아야 한다. 옛날 우리말은 성조와 고저장단이 분명했다. 단순하고 쉬운 방향으로 가면서 음가 대부분을 포기하고 모든 소리를 균등화, 평음으로 만들었다. 화석처럼 남은 단어가 눈, 배, 말이다. 인마친화의 날 계속 듣던 말이 ‘말(言) 잘 듣는 말(馬)’이었지만 이를 도치해 보니 먼저 ‘말(馬) 잘 듣는 말(言)’을 해야 이게 공감의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말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말이 따른다.

윤 교수 싸인 따라 운동장을 뛰어 돌던 말이 지쳐가자 중도에 멈춰 서서 지시자를 보며 살금살금 다가온다. 그때 윤 교수는 고개를 돌리고 말이 걸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 걸었다. 그의 설명이 따르면. “이때 말의 시선을 절대로 마주 보면 안 됩니다. 눈길을 피해주며 등을 보일 때 ‘그래 OK. 수고했어.’라는 승낙과 양보의 뜻입니다.” 이 순간 잠들었던 의식이 활짝 깨어나 ‘와우’라는 외침이 터졌다. “등을 보이지만, Don't turn your back.” 인간 율법이 말의 세계에서는 정반대로구나! 이날 참가자 모두 뿌듯한 배움이 있었다.

중동을 정처 없이 떠돌 때 도하인가 어딘가 농가에 매어진 당나귀를 본 적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니 그 선한 눈빛, 풍긋한 두 귀, 앙증맞은 자태에 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해질녘 남루하게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당나귀 타고 들어가는 어떤 광경이 눈앞에 나타났다. 마장마술 기수인 후배가 열 살 때 말을 처음 보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다니 놀랐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광란이 차츰 심해진 니체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채찍으로 얻어맞는 말을 보고 달려가 말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푼포수처럼 하염없이 흘렸다는 일화가 있다. 혹시 그 순간 니체는 인마일체(人馬一體)를 느끼지 않았을까. 마지막 교관의 말을 남긴다. “내가 대하는 말은 나의 거울이다.” E&C



눈을 품은 백록담



김재갑 SI사업그룹 부장 / 갤럭시 노트10

봄을 알리는 봄비

가슴을 뛰게 하는 하얀눈

마음은 어디에 하얀눈에

한라산 수목 가지가지마다

자연이 만든 빛나는 상고대

백록담이 품은 백설

가슴가득 신비함을 담고

하산하는 길

촉촉한 구슬로 변해 있는 하얀눈

아직도 가슴 뛰게하는

그날의 여운

다가오는 겨울이 기대되는

이유이지

- 2021년 어느날 -

냉장고를 채우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0월 20일 여러 신문에 일제히 실린 사진 한 컷. 월가의 청동 황소상 앞에 바나나를 수북이 쌓아 놓았고 맞은편 청동 고릴라상은 황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고릴라가 바나나를 쥌는다면 황소는 뿔로 들어 박을 자세이다. 전날 미국 주식 90%를 상위 부자 10%가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 뉴스와 연관하여 보면 이벤트 의미가 바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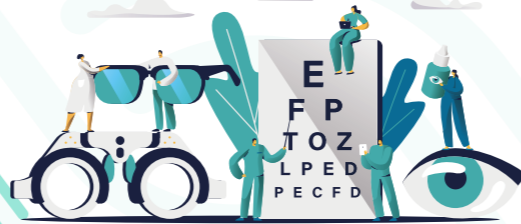
인천공항, 아울렛, 고급 백화점과 레스토랑은 연신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런 곳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자로 보인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그늘진 응달에 떨어진 낙엽처럼 미동 없이 조용히 산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종일 누워 천장만 올려다보는 독거노인, 한 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는 장애 노총각을 본 적 있다.

사진 속 하루, 울곡동 행복나눔 냉장고를 가득 채운 직원이 있다. 사회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라면, 김치, 김, 밀가루 등 420만원 어치 상당의 식료품을 선반과 냉장고에 가득 담았다. 기부는 누구나 하지만 이용자는 사회복지 취약자이다. 긴 검은 머리, 검정 마스크, 뚜렷한 눈썹과 눈동자 모두 블랙이다. 검정은 옅은 푸른색이 감싸는 누비 잠바와 양상בל을 이뤘다. 'Ebony and Ivory'를 이룬다. 누군지 얼굴 보니 아침이면 병아리 같은 애를 1층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새댁이다. 이 새댁 덕분에 밥과 김, 라면과 김치를 먹으며 '따습다.' 하는 사람이 또 어딘가 있을 것이다. 하루 예쁜 천사 활동을 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맞추어 보자.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sky03tree@kepco-enc.com으로 12월 3일까지 정답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권혁복 안경사

그릇된 시각을 교정 받는다



하마가 헤엄칠지 모른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물에 사는 동물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 실제 하마는 아는 물길을 수중에서 조금 뛰어다닐 뿐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 짧은 다리와 육중한 체구를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세상 상식은 절반 정도가 엉터리다. 권혁복 안경사를 만나 눈과 안경에 관한 그릇된 상식을 교정받는 기회를 가졌다.

우선 눈의 초점이 가까이 있으면 근시이고 이때 멀리 있는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초점이 멀리 있으면 원시이고 가까운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누진 다초점의 '누진'은 점차로 도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지 누적되어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다. 눈물 배출 샘은 좌우 안구 각각 2개로 배출관이 막히면 레이저 수술을 통해 뚫는다. 그러나 각막건조증은 눈물 양이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으로 눈물샘 악화로 생기는 병적 원인과 더불어 먼지나 꽃가루로 발생하는 외부 원인일 때가 있다. 잠들기 전 뻑뻑해진 눈을 진정시키려 겔(gel) 안경을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한 냉찜질보다는 따뜻한 물에 가제 수건을 적셔 온찜질해야 혈관이 풀려 눈 피로가 줄어든다. 왜 나는 반대로 하였을까?

한때 진화생물학에 매료된 적이 있다. 생물은 촉각⇒청각⇒후각 순으로 오랜 세월 진화하면서 마침내 원시 눈을 가진 생명체가 나왔다. 보는 '눈'은 현대용어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생물이 새로 나왔다는 경천동지의 사건이다. 눈은 탐색경으로 먹이 채집과 포식자를 피하는 생존의 열쇠였다. 그래서 생물은 더 좋은 눈을 가지려 혈안이 되었다가 드디어 투명한 단백질 합성한다. 각막이 생기자 뚜렷한 형상과 색깔, 거리를 재는 최상의 요건을 갖춘다.



권 안경사의 설명을 빌면 각막에는 혈관이 없다. 투명한 각막은 소금, 지방, 단백질이 섞인 눈물이란 윤활유로 와이퍼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막은 눈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대략 인간은 60초에 40회 눈깜박임을 한다.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눈깜박임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기에 각막은 메마르게 된다.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눈을 깜박이고 간혹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 목을 전후좌우 움직이고 한 번 주변을 휘익 돌아보세요” 그이의 권고이다.



권 혁복 씨는 헌칠한 키에 넉넉한 몸체 다정한 목소리 소유자다. 항상 차림과 태도가 말끔해서 안경점 실내의 밝고 투명한 구피, 금붕어 수족관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든다. 인터뷰 도중해야 온순한 젠트맨 이면에 숨겨진 와일드 캣도 보였다. 학창 시절 태권도, 육상, 농구를 한 특기 체육생이다. 도토리 머리를 한 미국 해병대를 보면 장난삼아 ‘셈퍼 파이(Semper Fi, 충성)’ 경례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동네 애들도 한 수 접는다는 또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다. 취미도 야외에서 몸으로 활동하는 스킨스쿠버, 스키, 낚시 등을 즐겨한다.

아내를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더니 태권도 도장이란다. 이분 아들, 딸 나이 계산을 그만 착오하였는데 이미 졸업 후 직장인이라. 사연을 들어보니 아픈 아버지가 4년 1남의 외동아들을 빨리 장가보내려 결혼을 일찍 서둘렀다. 사고(?) 친 게 아니라 이십 초반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자녀는 장성하여 벌써 직장을 다닌다. 딸은 아빠 영향을 받았는지 안과에서 검안사로, 아들은 IT 쪽 프로그래머로 일한다.

우리 직원은 좀 따지길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안경 맞추러 와서도 그러냐고 물었더니 “안경은 그 특성 때문에 정말 꼼꼼히 알아보고 정해야 하기에 오히려 그게 다행입니다.” 라는 반전이다. 안경은 대중 대중 맞추지 않아야 좋다. 직원은 대개 렌즈와 테를 저렴하고 질 좋은 모델을 요구하는 편이다. 그러나 칼 짜이즈 렌즈는 3배 비싼 고가에도 최고 투과율을 자랑하기에 한 번 적응하면 다른 렌즈 착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옛날 사진을 보면 안경알이 왕잠자리 눈처럼 크다. 렌즈가 좋아져서 작아진 것일까? 권 안경사는 렌즈는 90% 이상 플라스틱으로 제조하고 요즘 유리 성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유리로 만들면 무거워 안경 착용이 힘들어요.”

눈에 좋은 모니터는 따로 있을까? 해상도와 플리커링 차이는 있지만 모니터용 청광방지 필름이나 보호안경이 효과적이다. 시중 핀홀 안경은 눈을 쉬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40세 이후 눈 피로 잦은 이유는 보통 노화 때문이다. 또 인공눈물은 임시방편에 그칠 때가 많다. 눈곱 끼는 경우는 눈물 양이 부족하고 눈물 속 단백질이 응고되는 현상으로 바이러스 원인일 때가 있다. 가장 좋은 눈 건강은 역시 충분한 휴식이다.

여행 떠날 때, 늘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식을 반듯하게 키운 것 같다. 바깥에서 즐거움과 고생을 나누면서 “땀 흘린 만큼 돌아온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은연중 가르쳤다. 권 안경사는 게임에 빠진 아들을 보고서 스스로 게임을 배워 게임으로 아들을 이겨냈다. 그 이후 아들 태도가 달라졌다. 자식이 나이 스물 넘는다면 용돈을 주지 않고 스스로 벌게 한 대목은 인상적이다. 인생에서 쫓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인데 부모 마음이 어린 탓에 樂을 먼저 주고 만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키웠는지 궁금하여 묻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자아~ 마지막 마무리.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그에게 셈퍼 파이(always faithful)를 외쳐 본다. **E&C**

언제나 친근한

김천 서민 식당을 중심으로

이번 호에는 그 동안 다루지 못한 김천의 오랜 서민식당을 중심으로 간략한 소개와 특징을 담았다. 그다지 비주얼이 잘 나오지 않고 청결한 인상을 주지 않는 곳도 간간히 있다. 그러나 가성비 대비 맛은 괜찮은 편으로 한 번 시식해 볼 만한 식당들로 선정하였다.

저자거리 : 김천에서 맛으로 따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당이다. 식사 후 연화지 산책도 겸할 수 있다. 허름한 단층 구옥으로 실내는 포장마차 느낌이 든다. 테이블도 5개 정도 초졸한 구성이다. 고등어구이와 돼지불백을 메인으로 시골밥상 같은 찬과 밥이 곁들여진다. 직원이 손꼽는 맛집으로 Top 3에 항상 오른다. 저자거리 고등어구이는 전국 최고라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돼지구이 맛도 수위에 들 정도로 맛있다. 저자거리 정식은 단일 메뉴로 2, 3, 4인상 세트로 나온다. 점심때 다녀오기에는 좀 빠듯한 시간과 거리가 조금 아쉽다.



갈무리 : 김천에 처음 와서 “청국장 먹으러 가자!”는 직원 손에 이끌려 황금시장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갈무리 식당에 들어간 순간 놀랐다. 우리 직원들로 가득 찬 풍경이 드러났다. 상 위로 잔뜩 펼쳐진 반찬이 풍요롭게 눈에 찬다. 황금시장을 낀 덕에 상차림이 넉넉하게 특징이다. 갈무리 별미는 콩치무간장조림과 푸른고추 다진 양념장이다. 삶은 양배추 쌈에 싸 먹는다. 돌솥밥 누룽지를 굽어먹고 송충이까지 마시면 배는 뽕뽕해진다. 콩 알곡 그대로의 청국장을 퍼서 밥과 비벼 먹는 순간 행복해진다. 식사 후 황금시장에서 복숭아, 자두, 떡도 사보자. 시계 배터리를 교체하는 금은방도 인근에 있다. 겨울철 밀감을 난로에 구워 먹는 방법을 여기서 배웠다.



중국만두 : 토박이에게 맛집을 소개해 달라면 “중국만두 개아나에(괜찮아요). 할배, 할매도 환장해요. 자다가도 눈을 떠요.”, “식당 이름 알려 주셔야지요?”, “방금 말했잖아요?” 이런 동문서답이 오고 간다. ‘중국’은 만두 종류가 아니라 식당 이름 자체이다. 김천에 터잡은 중국인이 오랜 세월 만두를 찌서 팔았다. 토박이들에게 정든 맛이다. 웹을 검색하면 ‘불친절’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손님이 와도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한다. 불쑥 “오래 기다려야 해요.” 먹으라는 말인지 그냥 가라는 말인지 분간도 안 간다. 실제로는 주방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본래 여기 룰이 그런가 여기면 화는 나지 않는다. 만두 맛은 마약 같은 오묘한 짬맛이다. 만두가 뜨거워도 술렁술렁 입안으로 계속 들어간다. 식당은 50년 전 흑백사진에 나올 법할 정도로 낡았다. 당일 운이 따라야 만두를 먹는다. 항상 주문이 꽉 밀려 포기하는 사람도 적잖다.



초자연순두부 : 회사에서 10분 아포 방향으로 차를 몰다 보면 좌측에 ‘초자연 순두부’라는 간판이 보인다. 옛이야기 한 토막. 송산 선사가 절간에서 두부가 자꾸 없어져 누가 몰래 먹는가 궁금하였다. 어느 날 절에서 키우는 고양이 큰 대야 물 밑에 담그던 두부를 물끄러미 노려보고 있으니 가만있던 두부가 등실 떠오르고 고양이는 앞발로 두부를 건져 올려 남남 먹고 있었다. 염력 일화에 나오는 그런 ‘초자연’이 아니고 싱그러운 ‘草’ 자연이다. 햇것 그대로 ‘갓’ 구운 빵, ‘갓’ 찐 떡, ‘갓’ 지은 밥은 맛있다. 근처 두부 공장에서 국산 콩으로 지어 ‘갓’ 나온 순두부와 ‘갓’ 지은 밥만 준다. 그런 철칙을 지키는 희유한 식당이다. 순백으로 모락모락 부풀어 오른 순두부에 조선간장을 살짝 얹어 뜨끈뜨끈할 때 입안으로 가져가는 식감이 개운하다. 밥 한 공기 반찬 모두 합쳐 6,000원 순두부 백반이다. 습습한 순두부 한 사발을 오직 간장만으로 승부 보려는 분에게 추천한다. ‘갓’ 순두부 맛은 단백하다. 주인장에게 한기직원이 오면 주로 무얼 먹는가 물었더니 간재미 회무침, 돼지수육, 미나리 삼겹살, 모두부를 즐겨 먹는다고 귀띔해 준다. 의외로 직원들 발이 넓어 반경 10km 내외 식당은 대부분 사정거리에 있다는 걸 느꼈다.

부산 남포동을 중심으로 철판 닭볶음, 순두부 백반, 돼지갈비, 보리밥 정식은 골목길마다 열 곳 이상 식당들이 줄지어 문전성시를 이룬 작은 동네였는데 세월 흐름 따라 대부분 사라졌다. 자갈치 고등어 정식, 할매국수, 완탕만 간신히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즐겨 가던 식당이 어느 날 문을 닫았다는 걸 알고 주변을 서성인 적이 없는가? 노포 식당이 사라지면 유일한 그 맛 또한 소멸한다. 발길이 닿아야 노포 식당은 생명을 이어가니 한번 씹은 먹어 줍시다! **E&C**

고성산과 김천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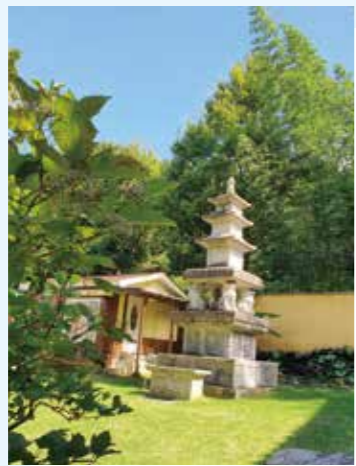
짭조름한 어묵과 오이 맛이 특이한 ‘오단이 김밥’을 1인분 근처에서 사고 서부초등학교에 주차한 후 고성산(높이 483m)을 올랐다.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조롱박, 석류, 무화과 열매가 주변에서 익어가고 연분홍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청명한 날이었다. 고성산을 오르는 지명이 원곡마을인데 발밑 아스팔트 아래 팔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곧 계곡이 펼쳐지리라 예상했다.

Book



계곡 폭은 3m 남짓 산 중턱까지 쪽 이어졌다. 수심은 얇고 암반은 넓지 않은 작은 계곡 냇물이다. 고성산을 반쯤 접어들면 푸른 이끼 낀 돌담, 어여쁜 소나무, 5층 석탑, 붉은 지붕의 아담한 성진사 절이 나온다. “사마타와 위뱃사나 명상센터이니 조용히 해주십시오.”, “개구리와 가재 생명을 온전히 해주십시오.”라는 표찰이 보인다. 풀밭에서 손톱만한 초록 청개구리가 앙증맞게 뛰어다닌다. 2cm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작고 귀엽다.

마음이 멈추어(止)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을 관(觀)하는 것이니 현대 말로 하면 집중과 관찰인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이 화두선을 무협지처럼 장식해 놓았지만 기법상 선(禪)은 보다 진화한 형태이다. 하지만 남방불교 영향으로 사마타와 위뱃사나의 사선정을 닦는 승려가 부쩍 늘었다. 좋은 목수는 연장 탕을 하지 않듯 방편도 누가 하나에 달려있을 뿐이다. 명상은 세상 관심과 절연해야 하는데 요즘 인심(人心)이 워낙 세사에 매달려 실제로 명상하는 이는 드물다. 고성산 오르는 길 내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공기만 한량없이 청량하다. 초심자나 여성분이 산행하기는 조금 난하다. 산이 높고 깊지 않지만 등산 초입부터 가파른 길을 쳐서 올라야 한다. 조금 깔딱고개 느낌이 드는 돌산에다 길은 좁고 숨 가쁘다. 정상 근처는 암석 길 이 군데군데 나타난다. 정상 데크에서 잠시 하늘 올려보고 쉬어가라는 목재 침대가 2채씩 놓여 있다. 김천 시가지가 현히 내려다보이고 산맥이 빙 둘러친 광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하산은 고성산 약수터 쪽으로 정했다. 촘촘히 나무 계단을 설치하여 길은 미끄럽지 않다. 단지 그늘져 약간 음산한 편이다. 고성산 약수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마시지는 못한다. 원점 산행으로 빠른 걸음은 2시간 30분, 느리면 3시간 정도, 반나절이면 넉넉한 산행이다.



고성산 맞은편에는 김천시립도서관이 있다. 중앙에 유리로 둘러싼 동형 원형 건물이 탐처럼 솟아있다. 저곳이 무엇일까? 도서관 광장에는 거대한 주물 책이 펼쳐져 있었다. “책 속에 길이 있다(There is a road in the book).” 문장들이 양각으로 빼곡 새겨져 있다. 정말 책 속에 길이 있을까? 찾는 이도 잃는 이도 있을 터이다. 책을 읽으면 언젠가 불가침 영역에 직면한다. 앎과 모름의 경계가 드러나고, 결국 책은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만 깨쳐 주는데 무지한 자는 자신이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다.

원형 건물은 전망대이다. 언덕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 하계를 내려다보라고 누가 설계하였다. 안쪽 로비에는 십 미터 주물 책을 쌓아놓은 책 기둥이 하늘로 용솟음친다. 어이구 나는 맹룡과강도 아니고 항룡유회다. 코로나 방역으로 전망관은 임시폐쇄 상태다. 사보 취재차 사진만 찍겠다고 사정하여 허락받고 4, 5, 6층을 연신 뛰어올랐다. 365도 파노라마 뷰로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가득하다. 얼핏 공항 라운지 느낌이 들었다. 폭신한 긴 소파도 알맞게 배치하였다. 아무도 없는 전망대에 홀로 있으니 강물 밑바닥 같은 고독이 육신거린다. 직원에게 소장 도서를 물었더니 대략 25만 권 이상을 보유 중이다. 혁신도시에도 도서관을 건립 중이기에 2022년이면 공연장을 갖춘 도서관이 곧 완공한다는 소식을 사서에게 들었다. 어디쯤 도서관이 지어질까? **늘푸른 병원 뒤쪽 공터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시민 삶을 들여다보면 책 읽는 습관이 되어있다. 생활 틈틈이 읽는다. 어딜 가나, 무얼 하나 책을 지척에 둔다. 그들이 읽는 책이 꼭 양서라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는 그런 풍경 보기는 어렵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은 학교 졸업한 후 1년에 평균 1권 정도 간신히 읽는다. 책보다는 세상에 즉각 반응하기 좋아하는 행동주의자 성향이 한국인에게 있다. 그리고 독서를 ‘공부’로 여기다 보니 책 읽는 습관과 멀어진다. 김천시립도서관 시설은 훌륭하여 대여증을 등록하여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 2022년 혁신도시에 준공할 도서관을 또 기대해 본다.

고성산 위치는 김천역사 앞쪽, 오단이 김밥집 왼편으로 이어진 언덕길에 있다. 동네는 지형적으로 산복도로를 닮았다. 조금 가파른 산이지만 김천 시가지 조망은 좋다. 참고로 고성산 산중 갈림길에는 등산 표지판, 방향 리본이 없다. 하행 길에 김천시립도서관을 둘러 신간 도서나 문화행사 일정을 체크 할 수 있다. **ESC**



이탈리아 비코에퀼세

어느 인기 없는 여행지의 낭만



숙소를 찾아가면서 쓴 이유를 뼈저리게 느꼈다. 산꼭대기에 있었다. 길이 접힌 건가 싶을 정도로 극단적 각도로 굽은 커브를 수십 개 올라 도착했다. 이 동네는 잠을 자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말피 해안을 어떻게든 많이 다녀야 본전 뽑는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듣도 보도 못한 비코에퀼세가 차츰 다르게 보였다. 아말피만큼 강렬하지 않고

별 인기는 없어도 이곳 매력이 분명히 있다. 산속에 포근히 감싸진 은은한 안정감과 분주한 세상에서 벗어난 잔잔함이 있었다. 어쩌면 평생 올 일 없을 동네에 어쩌다 와 있다는 사실이 주는 어떤 운명 같은 끌림도 있었다. 강렬함에 시선이 먼저 가더라도, 결국 비교적 잔잔하고 은은함에 마음 끌리는 편이다. 내가 그리 강렬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럴 거다.

비코에퀼세(Vico Equence), 처음 들어본 곳, 발음하기 어려운 이곳에서 팔십일 여행 중 열네 밤을 잤다. 애초 원했던 건 아니었다. 아말피 해안에서 2주 여행하기로 했는데 숙소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싸 미련 없이 포기하였다. 결국 우리는 좀 떨어진 비코에퀼세 동네에 숙소를 잡았다. 초록 마당을 품은 노란색 집에 머물었다.



하루는 아말피 해안 관광을 포기하고 머무는 동네를 여행해보기로 했다. 여행 블로그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나만의 여행기를 만들어보자. 숙소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대문 밖으로 나왔다. 가방 없이 카메라만 목에 걸었다. 잠만 자는 곳을 '여행'이란 렌즈를 끼고 다시 보니 많이 달라 보였다.

숙소가 높은 산중이라 20분만 더 올라가면 이름 모를 산 꼭대기였다. 정상에서 산과 바다에 감싸인 채 거대한 대자연 속에 우리만 있는 것 같은 황홀한 고요함에 사로잡혔다. 아래를 내려보면 아말피 해안의 포지타노 윗모습이 보였다. 분명 저 아래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화려한 동네를 멀리서 바라보니 좋다거나 해 보고 싶은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압박에서 풀려나듯 가벼워졌다. 들꽃이 잔뜩 피어 몇 송이 조심하며 꺾었다. 산과 하늘에 용서를 구하며 몇 송이 꺾었다. 철은 없지만 낭만의 빨강머리 앤이 된 것 같기도 했다. 그날 꽃을 선물해준 산에 여전히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꺾기보다 그대로 두고, 다시 보고 싶을 때 꽃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직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 참 사라지지 않는다.

꽃을 다듬을 가위가 필요해 산동네 딱 하나뿐인 슈퍼를 향해 걸었다. 창고에서 먼지 쌓인 가위를 찾아 주었다. 숙소에서 꽃을 정리하고 음료수 병에 꽂았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꽃병을 집주인이 본다면 조금 행복해하지 않을까 상상하며 시들지 않도록 꾸준히 물을 갈아줬다. 숙소를 떠나는 날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 옆에 꽃을 두고 나왔다. 그러는 내내 먼저 행복해져 버렸다.



이날은 80일 여행 중 가장 낭만적 날로 기억한다. 그 유명한 관광지인 낭만들을 이날의 낭만이 모두 이겼다. 낭만에 초 치는 소리라 비웃음 받아도 낭만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다. 친구가 "네가 생각하는 낭만이 무엇이야?" 물었을 때 "굳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굳이 하는 것들에서 낭만을 느낀다. 그렇게 굳이 하기로 한 동네 여행, 굳이 올라간 산, 들꽃을 다듬기 위해 굳이 산 가위, 음료수병에 굳이 꽂아둔 꽃, 집주인에게 굳이 남긴 편지. 이런 것들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어느 인기 없는 유행지에서 보낸 낭만적 날은 오늘도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도 굳이 사랑할 순간들에 힘이 되어 준다. E&C

우리 집 막내 천사 흑당이



흑당은 우리 집 막내다. 코에 검은 보석을 콕 박고 나온 사랑스러운 고양이이다. 하얀 설탕처럼 과하게 달콤하진 않지만 은은히 묵직한 단맛의 흑설탕을 닮아 흑당이라 이름 지었다. 막내를 만난 건 작년 7월, 막 무더위가 시작하는 어느 여름 날이다. 가끔 오다가다 본 공원 들고양이 급식소에 사료라도 채워주려 찾아갔는데 아옹거리는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에는 빨간 진물이 흐르고 눈곱이 잔뜩 끼었고 작은 몸은 바짝 말라 뼈밖에 남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울고 있었다. 마치 구해 달라는 듯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그치지 않는 모습에 모른 척 외면하며 돌아설 수 없었다.

처음 동물병원에 데려가 아픈 눈이라도 치료해 보내자는 마음으로 옆에 버려진 작은 종이상자를 주워 아기 고양이를 넣었다. 겁에 질렸지만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순하게 몸을 맡겼다. 혁신 도시에서 유일한 동물병원에 갔더니 마침 원장이 수술 중이라 오늘 진료가 어렵다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대충 씻기고 나니 긴장감이 풀려 피곤한지 내 팔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동물 천사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

첫날부터 모래 상자를 만들었더니 배변 실수 한 번 하지 않았고 사료도 가리지 않고 잘 먹었다. 진료도 받고 가족



Baby I lov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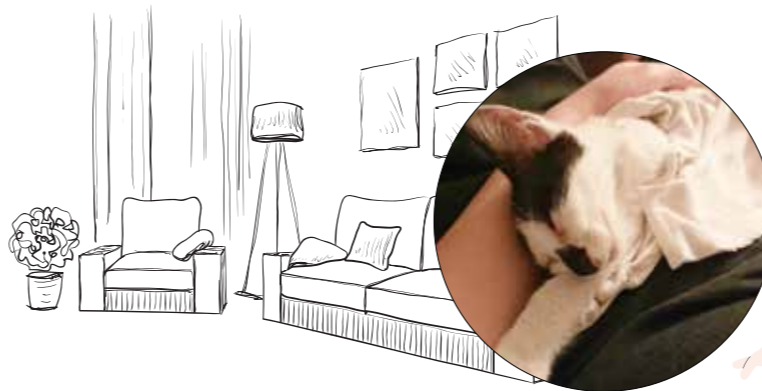
사랑도 듬뿍 차지해서인지 튼튼하고 한결 이빠진 흑당은 우리 기쁨이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로 지쳐가던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다. 흑당이가 작은 나사못 하나를 삼킨 줄 알고 24시간 동물병원에 진료 받으러 대구까지 갔던 아찔한 기억과 중성화 수술 후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해 안타까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불행히 가족 네 명 중 세 명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 지금도 종종 약을 먹지만 감수해야 할 작은 불편일 뿐이다. 좁은 아파트 반 이상을 흑당이 집과 가구가 점령하고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의젓해진 막내 흑당이가 이름처럼 달콤하게 애교쟁이로 평생 함께하기를 기도해 본다. 적당한 거리두기에 익숙하다가도 섭섭하게 느껴질 때쯤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얼굴을 부비부비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에 하루 피로를 잊게 한다. 퇴근 후 현관 앞까지 달려 나와 반겨주는 흑당

이는 집에 빨리 돌아와야 하는 완벽한 이유가 되었다. 예전에는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살았는데 이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막내 재롱을 보며 웃음을 터트린다.

흑당을 만나게 된 후 유기동물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김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다는 것도 최근 알았다. 사랑은 나눌 때 커지는 법이다. 부드러운 손길과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한 생사가 절박한 유기동물에게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온기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사람의 이기심으로 버려진 가없는 동물을 가족으로 맞아주기 바란다. 측은지심으로 입양한 동물이 커다란 삶의 희망이라는 기적을 누리 보시기바란다.

여러분, 반려동물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E&C



고래가 부르는 노래

고래는 물고기를 닮은 포유류이며 현존하는 공룡이다. 창조의 스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 다시 바다로 돌아간 종족이다. 혹시 당신은 혹등고래(humpback whale)의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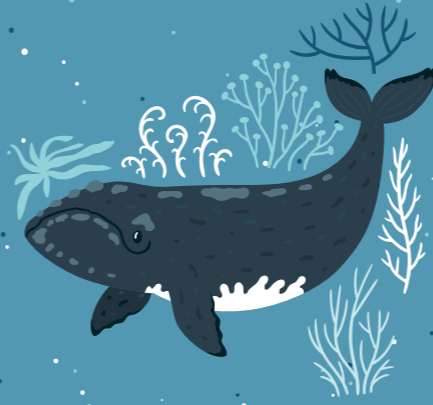
깊은 바다에서 울려 퍼지면서 웅얼거리는 소리는 아기의 웅얼이를 거대하게 증폭 시켜 놓은 것처럼 들린다. 웅웅 울리고 구슬프게 떨리면서 이를 가는 듯 킁킁거리는 커다란 우퍼 스피커 같다.

처음 고래의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세상의 음악 같아 그 저음의 가락은 뼈까지 울려 퍼지는 전율을 느꼈다. 고래 노래는 고독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구슬피 울부짖는 만가(挽歌) 같기도 하고, 거대한 생물이 내는 웅장한 사랑의 밀어치러림도 들린다. 그것은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담아 합쳐 놓은 듯한 큰 진폭의 스펙트럼이다. 신(神)은 고래의 몸을 하모니카 삼아 성가를 불러주는지도 모르고 원시 바다에서 울려 퍼졌던 태곳적 자장가가 흥얼거리는 콧노래로 나오는지도 모른다.

고래의 노래는 단, 한, 번, 도, 인간에게 해독된 적이 없다.

고래는 노래를 끊임없이 변조하기도 하고 다른 고래의 노래를 듣고 나서 한 귀절도 빠짐없이 몇 시간 동안 똑같이 재생하기도 하면서 언제나 노래에는 후렴구가 따른다. 인간은 고래가 숨을 내쉬면서 입으로 노래하거나, 숨을 쉬는 등의 구멍을 이용해 노래하는지 알고 있지만 고래는 머릿속에서 공기를 순환시켜 소리를 합성한다.

고래가 내는 노래는 공기가 아닌 액체의 물로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이 빨리 그리고 아주아주 멀리 퍼져나간다. 1970년대 이후, 보이저 우주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끝없이 우주공간을 떠돌고 있다. 이 우주선에는 혹시 모를 지적 외계 생명체를 위하여 지구를 알리는 인간 모습의 관화와 몇 개의 수학 공식, 그리고 고래 노래를 녹음하여 실었다. 상상하면 고래 노래는 암흑의 우주공간 사이로 한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고래의 미묘한 가락을 밤에 듣고 있으면 생명의 양수(羊水) 속에 떠다니는 태아의 뒤적임 소리, 작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내지르는 까르륵 웃음소리,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서 흥얼거리는 농부의 콧노래, 자정이 지난 시각 어두운 성당에 홀로 엎드려 흐느껴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들이키는 숨소리 이 지상에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내뿜는 숨소리가 모두 합쳐진 소리가 환청(幻聽)처럼 들려온다.

그 외롭고도 즐거우며, 슬프고도 고요한 가락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당신은 혹등고래의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EBC**

참고 사항 : 다양한 고래 노래를 유튜브(<https://youtu.be/xo2bVbDtiX8>, <https://youtu.be/savCAD6RyPI>)를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로 'Humpback Whale' 'Whale Song' 'Underwater Whale Sound' 검색란에 넣어 보세요. 여러 영상과 사운드가 나옵니다. 매우 신비로워 노랫가사를 알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고래와 코끼리는 모계사회입니다. 나이와 경험 많은 할머니가 무리를 이끕니다. 그래서인지 코끼리와 고래의 생태는 무척 닮은 것 같습니다.

등본과 초본 사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법률용어로서 정확히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단어를 골라 쉽게 설명을 시도하였다. 국어사전, 네이버 검색에서도 그 정의가 모호하거나 세밀히 분류해 놓지 않았다. 법률 서식은 목적과 용도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란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것을 발급받아 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법률 서류 중 간혹 등본과 초본을 구별해야 할 때도 있다. 소유권등기나 아파트청약의 경우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등본과 초본의 기본 뜻을 우선 아는 게 좋겠다.

- 등: 騰 '베낄 등' 전체(total) 개념이다. "원본 내용을 모두 베껴라."
- 초: 抄 '뺨을 초' 부분(partial) 개념이다. "필요 부분만 뺨아서 베껴라."

이를 기초로, 주민등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전체 세대별과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나온다.
- 주민등록초본: 개인별(본인) 기준으로 인적사항, 주소변동 등이 나온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7조 10항 참조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이력) 사항이 나오고 주민등록등본은 그게 나오지 않는 것이라 흔히 말하지만, 요즘은 주민등록등본에도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제출서류 정보를 검색하면 등본과 초본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해당 관공서나 여러 사이트와 비교, 확인하는 쪽이 안전하다. 단순한 걸 좋아하는 분이 라면 등본과 초본은 다른 서류로서 '등'과 '초'에 미리 빨간 줄을 그어 두시라.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용어가 간혹 나온다. 이 단어가 빈번해진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이다. 이런 설명이 정말하지는 않겠지만 빠른 이해를 위해 도식화해 본다.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기준'하고 오른손을 드는 아이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가장 기초적 기준은 무조건 '나'이다. 내가 중심이다.

- 직계는 수직 개념이고 방계는 수평 개념이다.
- 존속은 '尊' 높다는 개념이고, 비속은 '卑' 낮다는 개념이다.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높은 존속은 항렬 상 부모, 조부모가 있다. 즉 존속은 대개 부모를 의미한다.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낮은 비속은 항렬 상 아들과 딸(자식)이다. 자식이 성장, 결혼하여 낳은 손주도 포함한다. 수학의 합집합(직계+존속)처럼 테두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배우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 존속, 직계비속 어디에 속할까? 인터넷에 자세한 해설과 정답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더불어 여기에 상속순위도 함께 나온다.

아저씨와 아줌마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요령으로 ['피' 흘리고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다.]로 암기하라는 전문가 해설을 들은 적이 있다. 민법에서 '피'가 나오면 상당히 곤혹스럽다. 관계를 착각하면 권리를 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년, 90년대 학교 다닌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말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뜻이 짐작 가지 않는다. 2013년 7월 이전까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단어로 배웠기 때문이다.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법률용어를 직관으로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성년'은 장애와 치매 등으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른 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이런 분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후견인이다. 성년후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에서 '받는다'는 '피'를 앞에 붙이면 다시 도움받는 이가 된다. 머릿속에서 몇 번 곡예를 부려야 할 것 같은 혼란스러운 표현이다. 피성년후견인이란 단어는 매매, 계약, 대리 등에서 행위능력 없어 보이는 자와 연관되는 경우 자주 접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위 무능력자' 또는 '행위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뜻풀이를 따로 머리에 저장해 두어야 독해가 된다. **E&C**



시골 땅 사기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 텃밭, 과수원, 창고 등으로 시골 땅을 사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다. 우선 시골이라 도시보다 환경이 좋다는 환상은 접는 게 좋다. 공해와 오염이 심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김천과 상주는 축사가 꽤 많은 편이다. 축사는 200m~500m 떨어져도 바람결 따라 냄새가 흘러온다. 주위를 둘러보고 공장, 축사, 태양광 시설, 선하지(고압선 아래 땅)는 일단 피해야 후회가 없다.

소음에 민감한 분이라면 동네 한복판보다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이 좋다. 개 한 마리 짖으면 동네 개들이 모두 따라 짖는다. 닭울음도 생각보다 시끄럽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철도와 도로에 가까우면 땅이 흔들리는 진동도 느낀다. 도로는 법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다. 시골에서 멀쩡한 도로로 보여도 지적도, 지자체, 도로 소유주(私道)에 확인하는 게 좋다. 나중 농지를 대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때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묘지는 사람마다 기피 정도가 다르지만 양지바르고 경사가 낮은 곳에 보통 세우기에 조금은 무시해도 된다.

참고로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 감정평가서에는 이런 환경적 요소가 누락 또는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매 입찰에 나오는 감정평가서 평가액은 1~2회 유찰되거나 민원 제기를 감안하여 조금 부풀려 나온다. 시가보다 감정액이 낮다고 생각하지 말라. 감정평가 시기도 중요하다. 1년~2년 전 평가한 금액이 그동안 상승했다면 과거 값에는 괴리가 있다.

시골 땅을 어떻게 사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국가정보망을 통해 공시지가나 매매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땅임자가 부르는 게 값일 경우가 흔하다. 통계에 의하면 땅 주인은 대략 30% 이상 시가보다 높게 부른다. 매입자가 깎아 달라는 걸 감안할 때도, 인근 동네에서 얼마 주고 팔았다면 자기 땅도 그렇게 팔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간혹 '절충 X'는 가격협의를 하지 않는 대신 저렴하게 매도하겠다는 뜻이다.

첫째 : 직거래 구입은 유튜브에서 동네회관 또는 이장집에 막걸리와 담배 사들고 가면 좋다는데 약간 옛 이야기처럼 들린다. 직거래는 인연이나 운 따라 결정된다. 시골은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나면 금방 알아본다. 대뜸 어디서 왔는지 묻기도 한다.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 혹 나온 땅 없는지 흘러가듯 물어보면 어디서 땅을 파는지는 알려준다. 따로 '마을 통신'이 있는지 동네살림을 다들 잘 안다. 중개가 아니기에 매매가는 직접 흥정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 공인중개사를 통해 나온 토지는 다양한 땅을 골라잡는 장점이 있다. 그 대신 수수료가 든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가를 조정해 줄 때도 있고 매도자가 부르는 대로 팔려고만 할 때가 있다.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깔끄러운 돈 이야기 꺼내기는 무척 어렵다. 중개사가 주변시세를 잘 알고 쌍방 매매가를 조정해 주면 좋기에 그런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직업상 중개사는 땅의 나쁜 점을 축소하고 좋은 점을 과장하여 매매만 성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을 스스로 정확히 알아보고 챙겨야 한다.

셋째 : 직거래도 중개도 싫다면 경매가 있다. 경매에 나온 땅은 감정평가 완료되어 가격이 일단 매겨져 나온다. 경매로 땅을 산다면 시세보다 20%~30% 싸게 매입해야 한다. 자신의 수고가 따르기에 시가보다 비싸게 얻는다면 의미가 없다. 경매라면 대뜸 "권리분 석이나 명도 몰라요!"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경매 절차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매학원, 경매서적, 유튜브 강의보다 하루 법원에 구경 가는 쪽이 훨씬 낫다. 상가, 아파트, 주택과 달리 시골 토지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경매에서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입찰금액이다. 즉 입찰서에 얼마를 적어야 낙찰될지 가능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권리분 석이나 명도는 복잡하지만 그런 물건은 드물고 건들지 않으면 된다. 그냥 빈 땅이라면 1~3회 유찰된 것을 도전해 보라. 단 지상권, 지분경매, 무허가 주택 또는 창고 등이 없는 땅이다.

농촌을 둘러보면 위해 시설이 적잖게 나온다. 또 땅의 적정가격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땅의 위치, 환경, 교통, 가격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천천히 또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자신이 시골 땅을 구하려는 목적이 중요하다. 작은 과수원, 적당한 목공 작업 공간, 세컨드 하우스 건축에 따라 땅은 달라진다. 물론 전기와 물도 중요하다. 없으면 자신이 설치해야 하기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안온하고 조용한 땅을 언젠가 찾겠다고 관심두고 서서히 준비하시라. **E&C**

재즈, 낮섬과의 조우

재즈 좋아하는 사람은 백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듯하다. 확실히 넘지 못할 어떤 벽이 있다. 재즈가 현학적이고 학술적이기에 감히 접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3년 전 김천대학에서 네덜란드 재즈 연주단 공연이 있었다. 2시간 내내 유럽 재즈를 일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실토했다. 간혹 마니아가 극찬하는 곡을 추천받아 들어 볼 때도 솔직히 '이게 뭘까?' 귀가 멍멍할 때도 많다.

Jazz



음악 이력을 공개해 본다. 중2 때부터 British Rock을 좋아했다. 비틀즈, 롤링스톤즈, 도노반, 키크스, 마그나 카르타는 여전히 고향 같은 음악이다. 전 세계에서 60년대생은 '록'이란 공통분모로 묶여 있다. 록의 흥겨움, 격정, 저항 정신 같은 걸 숭배하는 세대이다. 돌이켜 보면 그 시절 스모키, 아바, 퀸, 엘비스, 디스코 음악 등을 경멸했는데 아무래도 잘난 척 보이고 싶은 심대 치기였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두 그리운 추억이 되어 편차 없이 듣는다.

20대는 클래식을 들었다. 그때 대학 캠퍼스는 타임즈 잡지를 옆구리에 끼고 음악 감상실에 다니는 게 어떤 교양의 표상 같았다. 클래식은 유럽 대리석 건축처럼 잘 짜여진 구성으로 보인다. 교향악은 19세기 기계와 산업문명이 유럽에 태동하던 시대에 나왔다. 무언가 일사분란하게 조합하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각광 받던 때라 그런지 그 시대적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클래식은 고전이라 그 절정 이후 새로운 창작이 나오지 않았다.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이상하게 오케스트라 같은 단체 음악과 멀어지고 지금은 쇼팽, 리스트 같이 소품만 듣는다.

수학, 미술, 詩, 음악의 공통점은? 그 모든 것은 '패턴'으로 패턴에서 시작하고 패턴으로 끝난다. 패턴은 익숙한 정겨움과 처음과 끝을 안다는 안도감을 준다. 가요와 팝송은 패턴을 매우 충실히 따른다. 슬프면 더 슬프게, 기쁘면 더 기쁘게 단순함을 극대화하기에 감흥이 쉬워 남녀노소 바로 즐길 수 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뻔해지면 간혹 그 노골성에 지칠 때도 있다. 패턴은 형식과 기술에 치중하여 변화가 많지 않다. 재즈는 패턴을 거부하려는 속성, 즉흥이나 변주로 좀 더 자유로운 무지향성이다.

재즈의 난해함. 재즈가 고답적으로 된 이유는 어느 날 재즈 연주자들이 "우리는 띠따라가 아니라 아티스트다."라는 선언 이후부터 생기기 않았을까 생각한다. 갑자기 재즈는 시장과 대중에 맞추는 걸 포기했다. 이때부터 재즈는 좀 형이상학적으로 바뀌었다. 미술에서 구상화 보다 추상화가 이해하기 더 어렵지 않은가? 애초에 재즈가 태생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술집에서 흑인들이 흥에 겨워 연주하면 사람들이 발을 구르고 춤추는 걸 즐겼다. 그래서 형질 변경한 현대 재즈를 우선 접하기 보다 초기나 중기 재즈를 듣고 서서히 폭을 넓히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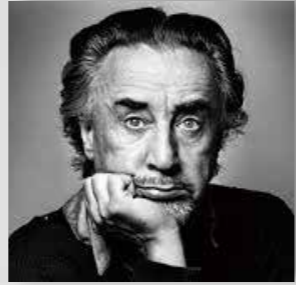
음악이 논리나 이해로 구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설명은 그만하고 재즈로 들어가 보자. 재즈는 익숙한 패턴보다 낮섬이 많은 장르이다. 어떤 통과의례를 지나야 본격적 입문이 시작하기에, 벽과 바닥이 차가운 대리석이라면 벌거벗은 알몸으로 부딪치면 살과 피가 튄다. 이렇게 무식하게 돌진을 반복하는 게 가장 빠르다. 재즈 입문으로 Duke Jordan 'No Problem' 앨범을 석 달 동안 들었지만 도통 알 수 없었다. 그걸 2년간 수천 번 반복하여 들었더니 어느 날 "아! 재즈는 이런 것이구나." 느껴졌다. 무얼 알려면 약간의 인내와 고행이 따른다.

피아노, 트럼펫, 색소폰 악기보다 보컬을 좋아한다면 빌리 홀리데이의 'Lady in Satin' 앨범을 추천한다. 음색만으로 새로운 재즈의 장을 열었다는 그녀 목소리는 표현하면 '꺾여지는 창법'이다. 늙은 창기가 인생을 달관한 채 해지는 창가에 앉아 허무와 사랑을 고즈넉이 또 담담히 이야기로 들려주는 듯하다. TV 광고에서 "I'm a fool to want you." 노래가 나올 때,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묻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주인공이다.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 미묘한 떨림은 거의 인식할 수도 없고 형용불가의 영역이다. 재즈는 가장 깊은 자신의 내면과 닿아있는 영혼의 바이브레이션을 느끼는 순도가 높다. 어느 날 Ben Webster의 'Misty' 색소폰 연주를 들었다. 그 선율에 빠져 들어 이게 영혼의 울림이구나 느꼈을 때 형언할 길 없는 눈물만 흘러내렸다. 재즈는 영혼을 흔드는 매력이 있다. 그것은 '시장'과 '대중'이란 거친 집게로 잡기에는 가날프고 섬세하다.

패턴을 벗어나려는 게 재즈이지만 재즈에 패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요, 팝송, 클래식보다 좀 더 낮설고 수줍은 성격 탓에 덜 익숙할 뿐이다. 시장과 대중에 맞추지 않기에 굉장히 사적(私的)인 음악이기도 하다. 그래서 딱 자신에게만 맞거나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 모미도 있다. 반대로 남들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소통이 안되는 면도 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한들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하나씩 넓혀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재즈를 포기하는 것은 초반에 '이건 나의 것 아니냐'하고 너무 빨리 문을 닫아 버리기 때문이다. 최소한 문 열어달라 두들기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문은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된다. E&C

자기 앞의 생 (La vie devant soi) 에밀 아자르



‘시벨의 일요일’과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영화를 본 후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않아누웠던 적이 있다. 그게 사춘기 감수성이라면 중년이 되어 ‘자기 앞의 생’을 읽고 한밤중
홀로 나와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무작정 2시간 걷고 나서야 가슴이 진정되는
이유는 무엇지 모르겠다. 포르투갈 페소아와 프랑스 에밀 아자르는 내가 올라야 할 산으로 존재했다.

처음 에밀 아자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어디선가 다음 문장을 읽고 난 후였다. 기
이한 독백의 외침 같았다. [“나는 에밀 아자르예요!” 하고 나는 내 가슴팍을 두드려
대며 외쳤다.“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작품의 아들이자 아비이
기도 해요! 나는 나 자신의 아들이자 아비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의 저자이며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인간 본능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한다. 이 본능에 반하는 인간을 두 명 알고 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알려진 T.E
로렌스와 로맹 가리로 알려진 에밀 아자르이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은닉된 채 익명
으로 살고 싶어 했다. [“나는 익명으로 남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익명의 시골
익명의 마을에서 익명의 여자와 익명의 사랑을 나누어 역시 익명의 가족을 이루고
익명의 인물들을 모아 새로운 익명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에밀 아자르는 한 작가에게 두 번 이상 상을 주지 않는다는 공쿠르 상을 수여 받은
뒤 ‘자기 앞의 생’ 소설을 가명으로 출판하여 또 연거픈 최고상을 받았다. 유서에서
만 작가가 자신임을 밝히는 사연도 소설 못지않게 재미있다. 권총을 입에 물고 자
살한 그의 생은 어쩌면 ‘자기 앞의 생’에 나오는 인물들의 파노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 앞에 놓인 생이란 결국 망가
지고 부서진 채 사라져 가는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번져 나오는 슬픔을 견디는 게
또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까.**



아랍계 고아 소년 모모는 환상을 여행하는 어린 왕자를 연상케 하지만 질감이 다르다. 여러 고아 아
이들과 더불어 빵과 살이 부딪치는 적나라한 삶 속에서 모모는 살아간다. 모모는 중동인 할아버지
하밀, 2차 세계대전 도중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 아주머니 로자와 파리에서 살아
간다. 로자 아주머니는 젊은 시절 창녀였는데 나이 들어 고아들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간다. 어린 모
모의 눈을 통해 어른들 삶이 투영된다. 프랑스에 건너와 사는 아프리카계 주민들도 등장한다. 버림받
거나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진 떨거지 인생들이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동질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에 스며들어와 사는 외로운 인생들이다.

늙어가는 하밀 할아버지는 눈이 차츰 멀어져가고 뚱뚱한 로자 아주머니는 병들어 죽어간다.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계가 서서히 소멸해 가는 현실이 바로 모모의 눈앞에 놓여있다. 자연법칙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자연법칙이 허물어 버리는 생사의 틈바구니에 끼인 사람이 자기 생을 앞에 두고 어
떻게 살아야 하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은 늘 광기를 동반한다. 사랑은 사람을 반쯤 미
치게 하지만 그때야 생의 얼굴이 드러난다. 에밀 아자르 소설들을 어떤 이는 ‘정신착란자가 충동적으
로 쓴 광기 어린 소설’이라고 표현한다. 소설 결말은 끔찍하고 기이하다. **행복, 아름다움, 낭만과 거리
가 멀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프고 무섭고 섬찟한 것들의 다른 이름이다.** “이 세상에 전적으로 희거나
검은 것은 없고 흰색은 흔히 그 안에 검은색을 숨기고 있으며 또한 검은색은 흰색을 포함하고 있다”
고 소설에서 말한다. 소설의 처음에 나오는 대화부터 가슴을 옥죄든다.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설 결말은 로자 아주머니에게 죽음의 손길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밀려간다. 모모와 로자는 어떤 최후
의 순간을 맞이할까? 그 장면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란다. 날 것 그대로의 생의 한 단면을 잘라보면
“당신도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진정한 생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사랑이란 신성한 광기와 마주할 것
이다. **E&C**



사보편집팀 제공 Tip

김천에서 자동차로 출발, 내비게이션으로 여수 가면 길이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대전으로 올라가 고속도로를 쪽 타고 내려가면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여수는 풍광과 분위기가 통영과 유사하다. 여수는 아무래도 간장게장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식당마다 맛이 다르다. 토박이가 이구동성, 첫손으로 꼽는 게장집이 가장 현격한 맛의 차이를 보여준다. 광고로 보일 여지가 있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여수와 통영의 자연 조망을 깨트리는 요소는 도시의 성장과 발달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네모난 아파트 단지이다. 시가지 언덕의 층차와 건물 높이를 고려하여 아파트 모양을 구상했다면 유럽의 멋진 해변 도시처럼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도시 계획과 설계가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쉽다. 여수 밤바다는 육지에서 바다 쪽보다는 섬에서 바다를 끼고 육지를 안아보는 시선이 훨씬 정감적 아름다움을 준다.

여수여행기

전남의 동쪽 경계에 반도로 빠져나온 여수를 가려면 순천을 통과해야 한다. 고흥반도가 동쪽으로는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경남과 접해있다. 이른 봄이면 붉은 이파리와 노란 꽃술의 동백꽃이 피어나고 후경으로 오동도, 돌산도 풍경이 펼쳐진다. 옛날 일대에 오동나무와 해장죽이 많았다. KTX 여수 엑스포 역사에서 오동도까지는 약 1.2km로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다.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돌산공원과 지산공원을 약 1.5KM 구간을 잇는다.



옛날 오동도에 아리따운 여인과 어부가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도적 떼에 쫓기던 여인이 벼랑 아래 깊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졌고 남편이 오동도 기슭에 무덤을 지었는데 북풍한 설 하얀 눈이 쌓인 무덤가에 동백꽃이, 또 푸른 정절의 해장죽이 돌아났다. 이런 사연으로 여수는 오동도 동백꽃을 '여심화(女心花)'라고 부른다. 오동도 방파제 오른쪽 가파른 층계와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자산공원에 닿고 여수를 두루 전망하기 좋은 곳이다.



만성리 해수욕장은 검은 모래로 알려진 곳으로, U자형으로 폭 파묻힌 바닷가에 거무튀튀한 해변이 이색적이다. 검은 모래로 찔질하면 건강에 좋다고 '검은 모래 눈 뜨는 날'이라는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여수를 여행하면 여순사건에서 처형된 희생자를 기리는 기록관이 시내 곳곳에 보이니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면 읽기 바란다.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노래 덕분에 여수는 더 유명해졌다. 여수 밤바다를 잘 보려면 여수해양 공원을 따라 건너 반대로 섬에서 항구 쪽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 해양공원 산책로는 주말 저녁 버스킹이 열리는 낭만 포차 거리로 바뀌고 먹자골목이 열린다. 주변에는 해멜 등대와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이 낮의 풍경을 보여 준다. 여수 출신 허영만 만화가의 벽화 갤러리가 여기에도 있으니 찾아보자. 여수 도심권 관광지를 여행하는 방법에는 시티투어 여수낭만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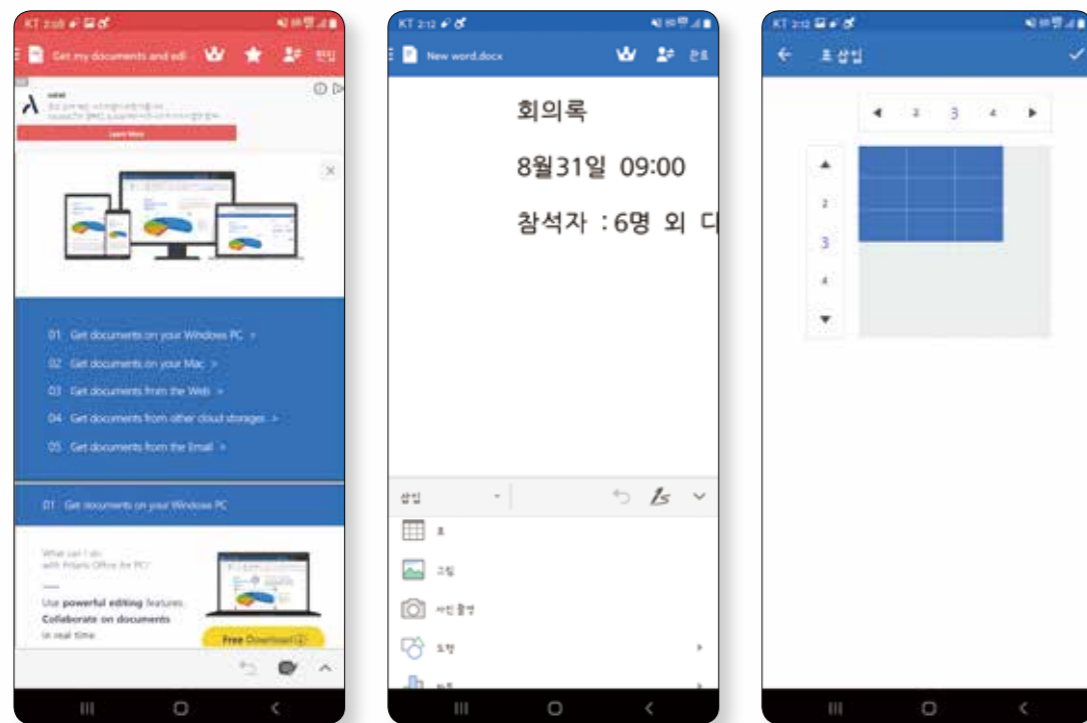


여수는 바닷가인 만큼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풍부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여수를 대표하는 10味는 게장백반, 서대회, 여수 한정식, 굴구이, 장어구이, 갈치 조림, 갯장어 회 하모, 새조개 샤부샤부, 돌산 갯김치, 전어회와 전어구이다. 이들 요리를 맛보려면 이순신 광장 원편 여수 좌수영 음식문화 거리를 찾거나 맛집 골목이라는 봉산동에도 갈 수 있다. 여수에서 돌산 들어가는 어귀에 2000년대 초부터 20여 곳에 이르는 식당과 가게가 있다. 꽃게장이 일반적이지만 여수는 껍질이 딱딱하고 큰 집게발을 가진 돌게가 유명하다. 돌게는 크기는 작지만 살이 쫄득하고, 간장과 더불어 칼칼한 고추 양념에도 잘 어울린다. 허영만의 식객에 나오는 원조식당을 비롯하여 식당마다 각자의 게장 맛을 자랑한다. E&C

오피스 무료 프로그램 Polari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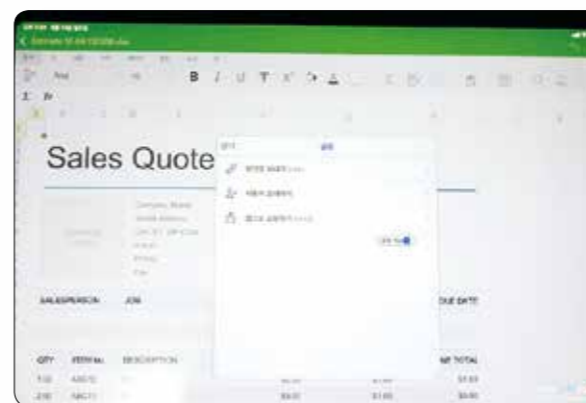
재택근무 시 문서 작업이 필요할 때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개인 무료 앱을 소개합니다.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PDF 등 단순 편집 및 뷰어 용도로 구매하지 않고 윈도우나 맥OS에서도 사용하는 앱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는데, 가정에서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오피스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에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려고 구매하고자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편집 및 뷰어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편한 오피스 무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어플에 장점은 어떤 기기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연동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서 형식과 호환되어 스마트폰에서도 뷰어 대신에 쓸 수 있어서 급하게 열어보거나 문서 작업을 당장 해야 하는데 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Word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PDF 등 가능하며 윈도우 운영체제 물론 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이어서 작업하기 용이합니다. 프리웨어 이기는 하지만 일부 더 필요한 기능을 위해선 유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라면 웬만해선 유료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PC로 사용할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폰에서 사용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도 지원하여 휴대폰보다 큰 화면으로 문서 작업하기 편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록 작성할 때는 정말 편합니다. 이런 니즈를 파악하여 최근 업데이트에는 펜슬 반응 속도 및 정확도로 입력 가능합니다. 문서간의 공유 기능도 편리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문서를 링크/사용자 초대/앱으로 공유하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업하여 바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유하는 법 또한 편리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뿐 아니라 iOS도 쓸수 있는 만큼 크게 제한은 없고, 받을 때 무료 및 체험판으로 받아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오피스 사용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고 뷰어 뿐 아니라 편집도 가능하여 급하게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모든 형식으로 변환 및 호환 가능한 점이 장점이고, 내보내기 저장할 때 각각의 형식으로 저장 가능해서 PDF 파일을 Word로 변환가능하여 편하고, 폰과 PC 구매 받지않고 열람 및 편집 가능한 점은 매력적입니다. 최근에는 무료 광고 서비스 불만이 있어 동영상 보면 모든 광고 60분 제거 혹은 광고 제거를 구매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기, 편집 정도 모바일로 해봤는데 간단한 수정 정도는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수정되는 것 같고 전체 편집하고 문서 작업은 PC로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E&C



독자와의 수다 사보 뒷풀이

홍콩 영화를 보다가 익숙한 멜로디가 나와 가만 생각해 보니 현인의 '꿈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웹을 검색해 보니 그게 본래 홍콩가요이더군요. 평생 우리네 정서를 애절히 담은 한국가요라 믿고 살았습니다. 또 일본 드라마를 보다가 어린애가 "땀다 땀다 비행기" 노래를 불러 놀랐습니다. 저게 일본 동요였나? 찾아보니 전래 미국 동요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똑같은 놀이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일본은 '오뚜기가 구르다.' 나라마다 말은 다르지만 놀이는 같습니다. 이 놀이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 개를 'dog', 사람을 'human'이라고 하는 걸 보고 영어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초로 따지면 역사, 문화, 언어는 이런 착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 것이야!"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소수 학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말 단어는 터키, 바이칼보다는 인도 따밀어와 가깝게 보입니다. 아직 한국어의 진정한 부모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쌍둥이인데 유일하게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언어(Orphan Language)로 분류합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 기세가 무섭습니다. 일본과 인도에서 자기를 놀이를 베낀 것이란 주장도 있다는데 사물의 기원과 세상의 끝(the end of the world)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원고모집

- 2022년 새해! With코로나로 새해에 세운 계획과 소망 등을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원고료 또는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여행이나 맛집, 반려동물, 취미 등과 같은 직원 여러분의 또다른 일상을 소개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 ▶ 분야 :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는 에세이 ▶ 원고 분량 : A4, 2면
- '돌도 없는 내 친구'로 평생 정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절친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 1명이 함께 2인으로 산책,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대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분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2면
 - 원고료(7만원) 제공 계획, 신청하시고 계획 알려주시면 기타 지원 방안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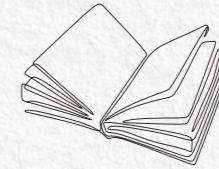
원고나 독자의견을 보내주시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세요 상품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독자의견을 12월 3일까지 sky03tree@kepco-enc.com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

-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최창섭 (기술기획팀 사원)
 - 김동우 (사업관리기술실 차장)
 - 박준우 (전기계측기술실 사원)
 - 윤용준 (사업관리팀 차장)
 - 문경님 (사업관리팀 차장)
-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유광열 (사외독자)
 - 김명식 (사외독자)
 - 장우익 (사외독자)
 - 이주연 (사외독자)
 - 이정숙 (사외독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인생 V를 그리며" 권태명 조경 반장의 이야기. 저도 가끔 한기를 방문할 때 마다 잘 꾸며진 조경과 푸르른 수목을 보고 감탄하게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섬세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잘 투영시킨 조경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방문객에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잘 보여주면서 직원들에게는 잠시 휴식을 통해 심신의 피곤도 달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공간으로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광열 사외독자)

• 코로나19로 외출도 쉽지 않은 때에 4곳의 추천 여행지 한곳한곳 읽으며 간접여행 다녀보았습니다. 그중 극한의 여행지 '인디아'가 색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오감을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사람들의 여유, 행복한 모습과 사람의 재가 흘러가는 갠지스강을 보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읽으면서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언젠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숙 사외독자)



• '우리는 메타버스를 타고 간다'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각 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만 한국전력기술은 전부터 3D 등의 스마트 기술을 철저히 준비해서 선두주자로 나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독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제어훈련도 메타버스로 구현되고 메타버스 타고 가는 미래의 일들이 머리에 그려지는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은미 사외독자)

• '잔돈에 강하고 큰돈에 약한' 기사를 읽고 공감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징크스가 있어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극복하는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가격대를 머릿속에서 짐작하며 비싸다, 싸다를 느끼는 내용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앞으로는 경험치가 쌓여야 가격이 보이고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 아무것이나 의존하는 습관을 피하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준을 정하기.....등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 현명히 살리라 다짐해봅니다. 다음 호는 벌써 올 마지막호이네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힘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김명식 사외독자)



• '우리는 메타버스를 타고 간다' 기사를 읽고 우리는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타버스가 요즘 10대 세대를 위주로 널리 상용되고 직장인들에게는 화상회의 등 새로운 체계로 자리매김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신기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체험하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가 발전소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우익 사외독자)

• 정덕목 부장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철학적 사고' 잘 읽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탄소배출 삭감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요즘 국내에서도 재조명받는 것 같아요. 일본은 60년 지난 노후 원전도 연장, 가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접는 것 같아요. 정치 논리보다 과학과 기술 논리로 해야 한다는데 한 표 던집니다. (이주연 사외독자)